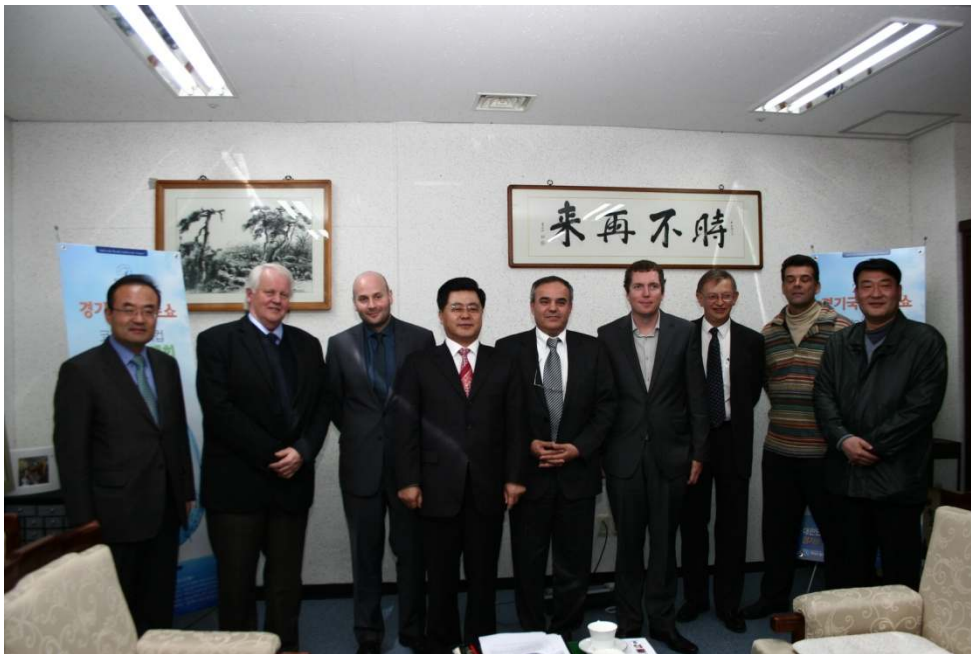


2009. 03. 11

“경기국제보트쇼, 세계 5대 보트쇼 가능할 것”

- 경기도, 해외홍보 및 투자유치 위해 기자단 초청 행사 가져



“필요한 인프라만 갖춘다면 경기국제보트쇼가 세계 5대 보트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10년 전 두바이의 약속을 10년 후 이뤄냈던 것처럼 경기도와 화성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해양레저산업의 싹을 강국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영국, 호주, 걸프, 아시아 지역의 보트산업 유력지 기자 4명이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나빌 파하트(World of Yachts & Boats Magazine, 중동) 편집장은 경기도가 가진 해양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행사는 '2009 경기국제보트쇼'를 보트산업 관련 해외유력 잡지에 노출시킴으로써, 해외업체·바이어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경기국제보트쇼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팀 코벤트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팀 코벤트리는 독자층과 잡지 특성을 고려해 세계적인 보트 관련 잡지인 IBI(International Boat Ind

-ustry)를 비롯해 호주, 중동, 아시아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잡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영국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의 Mr. Ed Slack, 호주 Marine Business의 Mr. Scott Thomas, 중동 World of Yacht and Boats 의 Mr. Nabil Farhat, 아시아 태평양 지역 Sea Yachting 의 Mr. Scott Murray 기자와 경기국제보트쇼 특별자문관인 영국해양협회 부회장인 Tim Coventry 와 Mike Derret이 동행했다.

경기도는 이들과 함께 화성시 전곡항을 방문하여 2009 경기국제보트쇼 행사장과 마리나 시설·해양 복합산업단지 예정부지 등 현장투어를 하고, 경기도 유연채 정무부지사 인터뷰와 최영근 화성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경기국제보트쇼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알리는데 주력했다.



경기도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세계 보트산업 유력지 기자단이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기국제보트쇼가 국제적 행사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경기도 서해안이 동북아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한 현대차의 디젤엔진 제조기술을 활용해 레저 선박용 엔진을 개발한 HMC Seasall(대표 정승갑)과 미 해군도 탐내는 '안테나의 지존'으로 이동중 수신 기술력으로 정평나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Intellian Technologies(대표 성상엽) 회사를 방문하여 관련 첨단 산업의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10일에 이들 기자단은 화성시 기아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며 '기계기술 강국'을 몸소 체험한 후, 지난해 '경기국제보트쇼'에 경기용 보트를 제작 납품한 업체 '암텍'에 들러 이상홍 대표로부터

기술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대해 호주의 스코트 토마스 기자는 “한국에서 보트쇼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호주에 경기국제보트쇼를 제대로 알려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를 제안한 팀 코벤트리는 초청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질문에 “전문 분야와 주 독자층을 고려해 4개의 편집인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므로 이들 매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